

YANOLJA RESEARCH BRIEF

2026년 상반기 한국 인·아웃바운드 관광 실적 분석

2026년 상반기 한국 인·아웃바운드 관광 실적 분석

핵심 요약

- 인바운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0만 명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전년 대비 +21.3%, 2019년 대비 +26.9%). 국가·지역별 다변화와 의료관광 성장에 힘입어 관광수입(136.1억 달러)과 1인당 지출액(1,270.4달러) 모두 2019년 수준을 상회
- 아웃바운드: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1,496.2만 명으로 2019년 수준(-0.3%)을 아직 회복하지 못함. 고환율·고유가 여파로 5~6월 두 달 연속 감소 전환
- 관광수지: 상반기 누적 -12.6억 달러 적자이나, 3월 11년 4개월 만에 월간 흑자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흑자 기조. 원화 약세가 인바운드에는 순풍, 아웃바운드에는 역풍으로 작용하며 수지 개선을 견인
- 하반기 전망: 상반기 수지 개선 흐름에 힘입어 올해 연간 관광수지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전망됨. 하반기 월평균 약 2.1억 달러 이상의 흑자만 유지되면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한 범위이나, 원화 강세 지속 여부와 방한객 1인당 지출액 추이가 변수

인바운드 관광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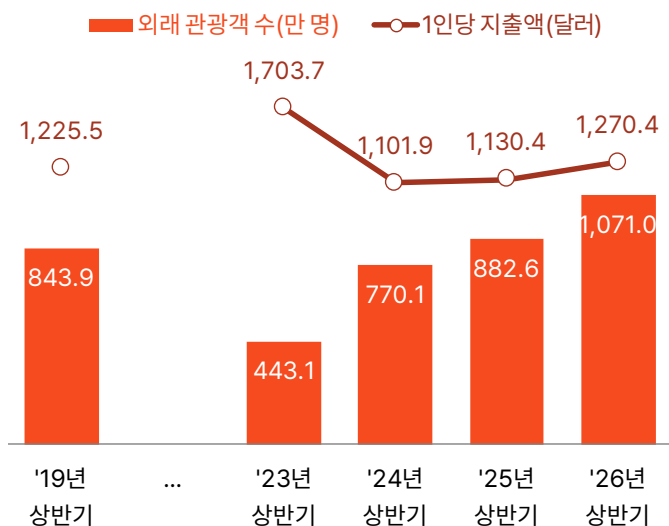
외래 관광객 수: '26년 상반기 1,071.0만 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 경신

- 2026년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은 1,071.0만 명으로 집계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3%, 2019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수치로, 2025년에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선 인바운드 시장이 올해 한 단계 더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격화 이후 글로벌 항공유 가격 상승과 일부 노선의 우회·공급 조정 등이 나타났지만, 방한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월별로도 1~2월 126~143만 명 수준이던 방한객 수가 3월 204.6만 명으로 늘었고, 4~6월에도 매달 194~203만 명대를 유지했다.
- 대륙별로는 아시아와 비아시아권이 모두 성장했다. 아시아 시장은 852.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2%, 2019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해 관광객 수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2025년 상반기에 이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비아시아권도 미주 107.7만 명(전년 대비 +12.7%), 유럽 73.9만 명(+20.2%), 오세아니아 17.2만 명(+11.4%), 중동 15.0만 명(+12.9%), 아프리카 3.8만 명(+7.2%)으로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 국가별로는 중국이 321.2만 명(전년 대비 +27.1%)으로 최대 시장 지위를 유지했고, 일본이 195.0만 명(+20.4%)으로 뒤를 이었다. 두 시장 모두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2019년 실적을 넘어섰다. 대만(115.0만 명, +33.4%)은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미국(81.2만 명, +11.1%), 필리핀(35.8만 명, +16.2%), 홍콩(34.1만 명, +17.2%) 등을 포함한 상위 10개국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 입국 경로에서는 비수도권 관문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2026년 상반기 수도권(인천·김포) 공항 입국 외래객은 750.0만 명으로 2019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반면, 지방 공항(김해·대구·청주·제주 등) 입국자는 196.3만 명으로 42.2% 증가했다. 지방 항구(부산항·제주항 등) 입국자도 101.6만 명으로 2019년 대비 63.8% 늘었지만, 수도권 항구 입국자는 23.2만 명으로 10.4% 감소했다. 이는 방한 수요 증가가 수도권 공항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방 공항과 항만으로 일부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수입: 총액과 1인당 지출액 모두 2019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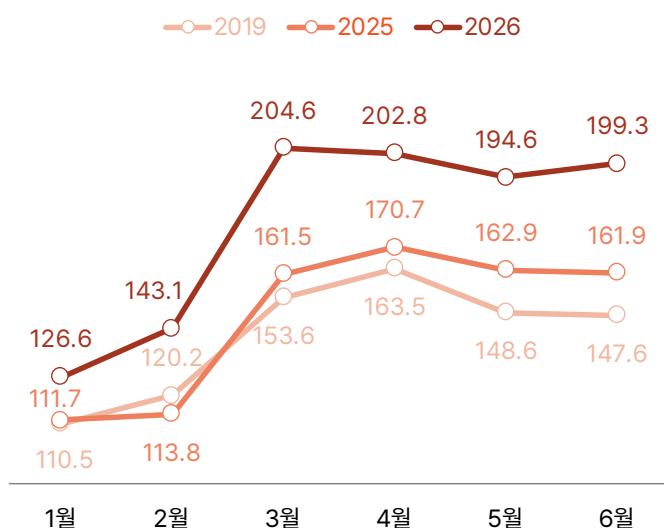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누적 관광수입은 136.1억 달러로 2019년 동기(103.4억 달러) 대비 31.6%,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다. 1인당 관광수입은 1,270.4달러로 2019년 대비 3.7%, 전년 대비 12.4% 늘었다. 따라서 명목 달러 기준으로는 총액과 1인당 관광수입이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 외국인 의료 소비의 가파른 증가는 고부가가치 관광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의료 소비액은 약 1조 1,931억 원으로 2019년 동기의 6.6배,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다. 체류 시간이 길고 지출 규모가 큰 의료관광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비축으로 자리 잡으며, 1인당 지출액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다만, 면세점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상반기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 수는 2019년 961.8만 명에서 2026년 664.4만 명으로 30.9% 감소했고, 1인당 매출액도 870.5달러에서 506.7달러로 41.8% 줄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면세점 총매출액은 83.7억 달러에서 33.7억 달러로 59.8% 축소되었다. 체류 시간과 지출 규모가 작은 크루즈 입국자도 상반기 48.1만 명으로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며, 저지출 관광객의 비중 확대라는 형태로 1인당 지출액에 하방 압력을 더했다.

외래 관광객 수 및 1인당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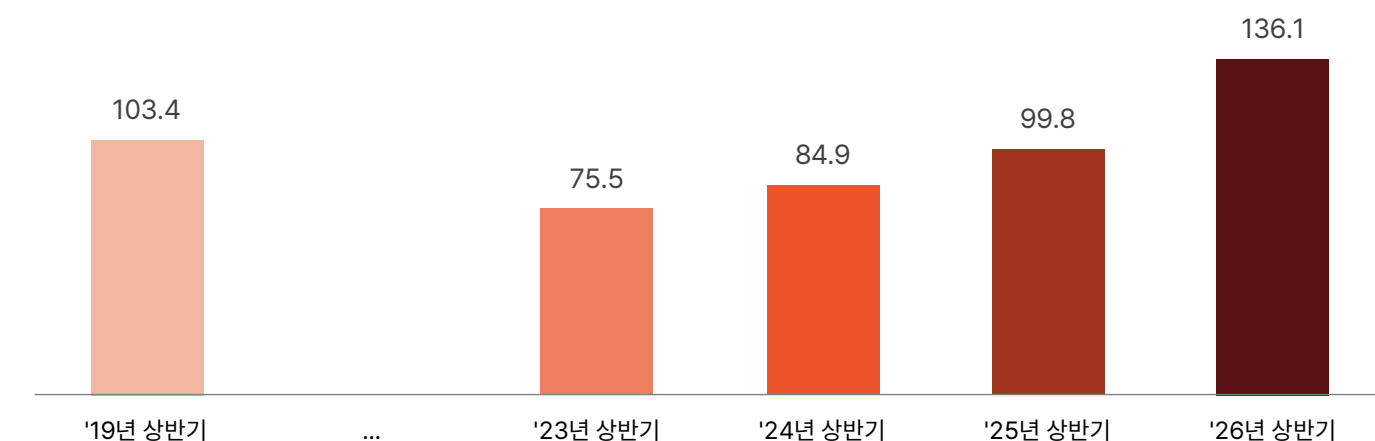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월별 외래 관광객 수 변화(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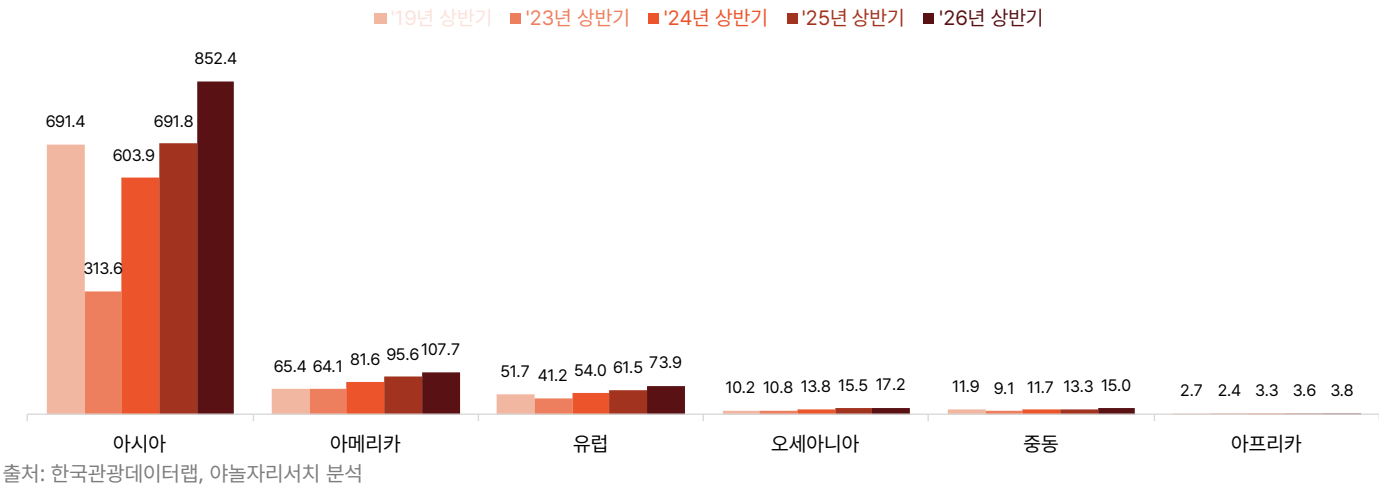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관광수입(억 달러)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대륙별 외래 관광객 수(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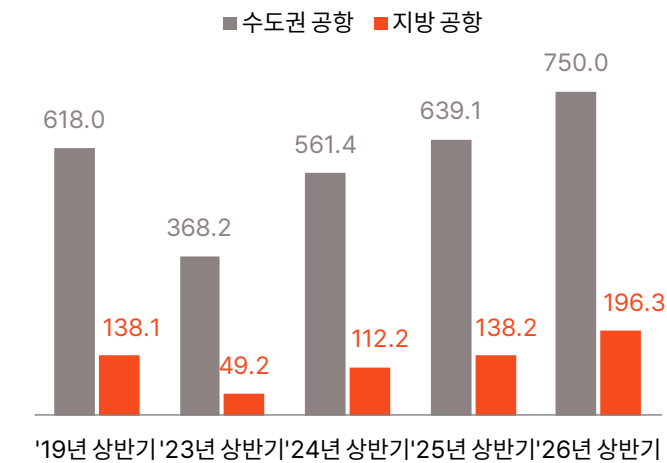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수(만 명)

국가	2019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9년 대비 '26년 증감율(%)	'25년 대비 '26년 증감율(%)
중국	280.2	54.6	221.9	252.7	321.2	14.6	27.1
일본	165.4	86.2	143.2	161.9	195.0	17.9	20.4
대만	61.4	40.2	68.5	86.2	115.0	87.3	33.4
미국	50.8	51.4	64.1	73.1	81.2	59.7	11.1
홍콩	32.8	16.9	25.3	29.1	34.1	3.8	17.2
태국	29.4	20.8	16.8	16.0	18.9	-35.8	17.7
필리핀	25.6	14.8	24.8	30.8	35.8	39.9	16.2
베트남	27.5	19.1	24.9	26.9	30.0	8.9	11.4
말레이시아	19.1	11.4	14.7	15.4	17.4	-8.9	12.7
러시아	16.9	7.5	9.1	11.0	12.1	-28.5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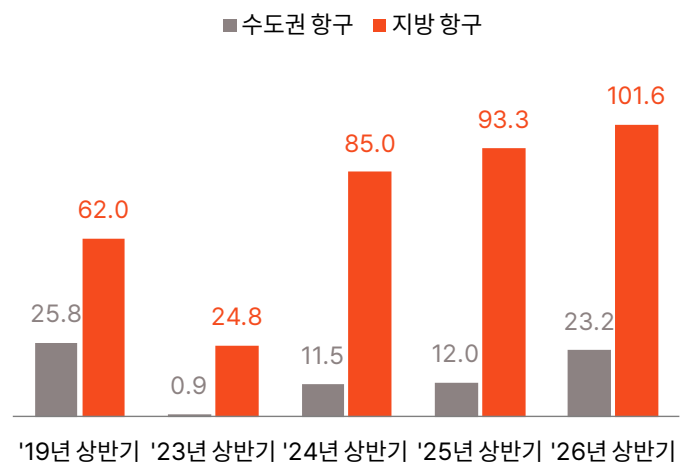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수도권·지방 공항 입국자 수(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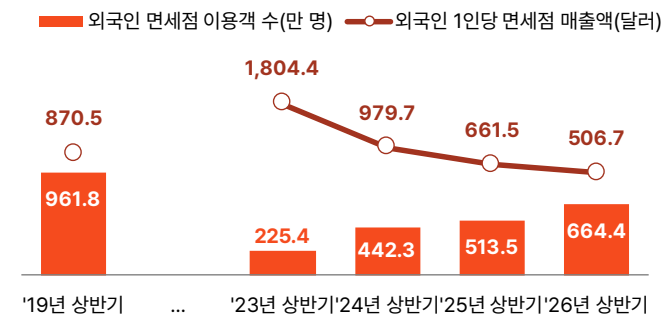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수도권·지방 항구 입국자 수(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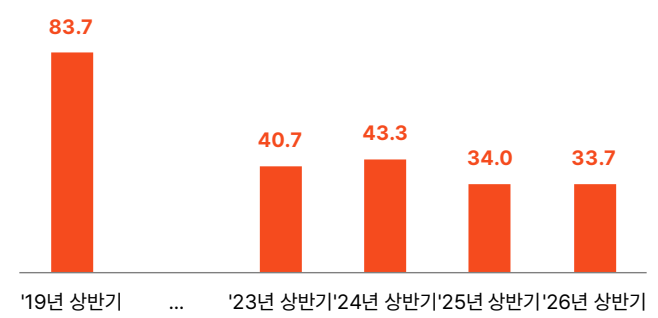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 수 및 1인당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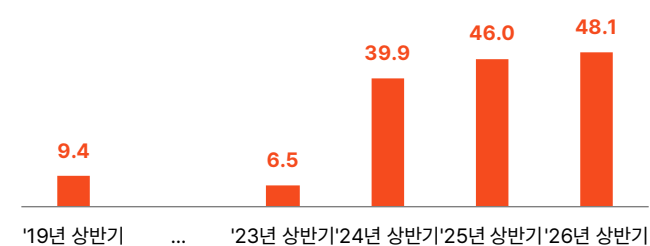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야놀자리서치 분석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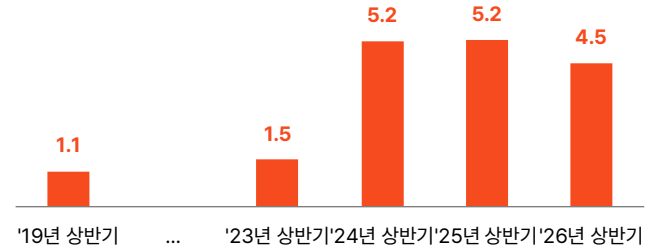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야놀자리서치 분석

크루즈 입국자 수(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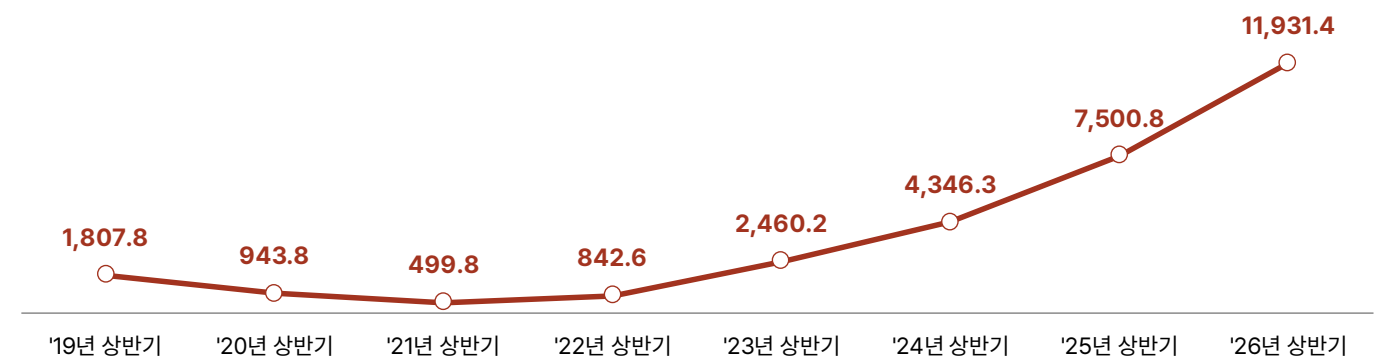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크루즈 입국자 비중(%)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외국인 의료 소비액(억 원)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아웃바운드 관광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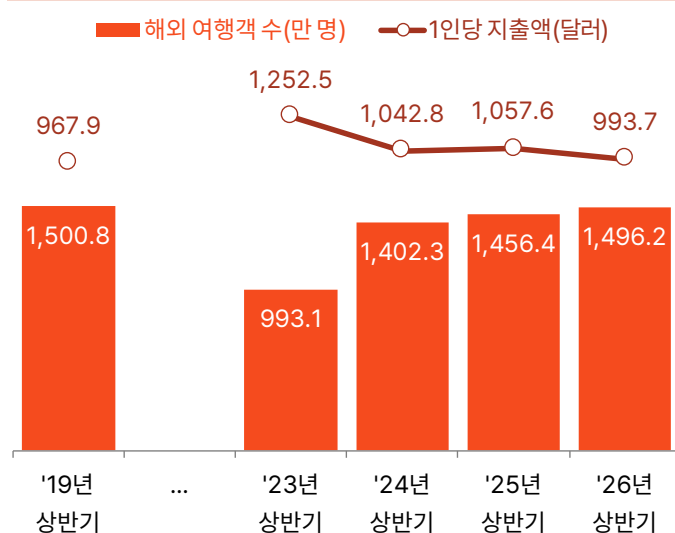
해외여행객 수: '26년 상반기 1,496.2만 명으로 2019년 수준에 근접

- 2026년 상반기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1,496.2만 명으로 2019년 동기보다 0.3% 적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으나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전년 대비로는 2.7% 증가했지만, 월별로는 1~4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가 이어지다가 5월(-2.1%)과 6월(-10.0%) 두 달 연속 감소로 전환했다. 이러한 둔화는 2월 말 이후의 글로벌 항공유 가격 상승과 일부 국제선 공급 조정, 높은 환율 등과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
- 목적지별로는 일본 쏠림이 더욱 뚜렷해졌다. 일본 방문객은 567.5만 명으로 2019년 대비 46.9%, 전년 대비 18.6% 증가해 전체 해외여행객의 37.9%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25.7%보다 12.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은 216.1만 명으로 2019년보다 4.0% 많았지만 전년 대비 2.1% 감소했고, 중국은 171.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 반면 미국(63.2만 명, 2019년 대비 -40.8%), 태국(58.7만 명, -35.3%), 필리핀(56.3만 명, -40.5%), 홍콩(46.3만 명, -38.7%), 마카오(28.4만 명, -36.9%), 말레이시아(19.4만 명, -40.0%) 등 다수의 장거리·동남아 목적지는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는 전체 출국자 수가 2019년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회복이 특정 목적지, 특히 일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지출: 달러 기준 2019년 소폭 상회, 전년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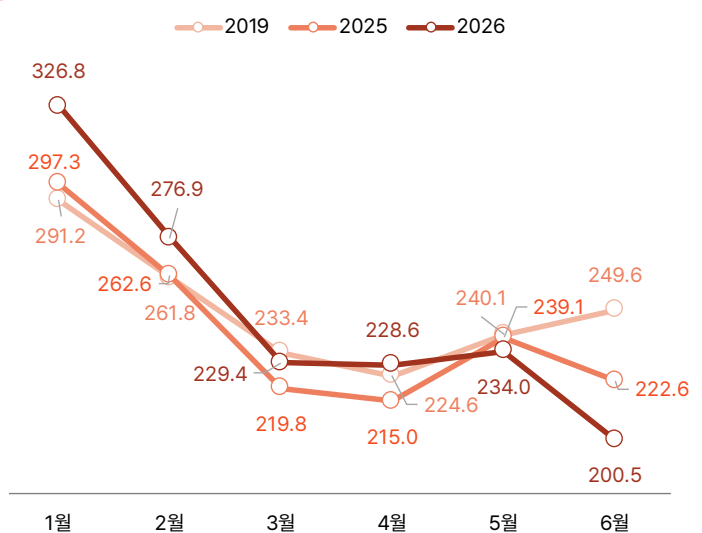
- 관광지출은 2026년 상반기 148.7억 달러로 2019년(145.3억 달러) 대비 2.4% 증가했지만, 전년(154.0억 달러) 대비로는 3.5% 감소했다. 1인당 관광지출은 993.7달러로 2019년의 967.9달러보다 2.7% 높았으나, 전년의 1,057.6달러보다는 6.0% 낮았다. 한편 기간 평균 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 관광지출은 2019년 대비 32.9% 증가했다. 즉, 달러 기준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었지만, 높은 환율로 인해 내국인이 체감하는 원화 부담은 훨씬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여행객 수 및 1인당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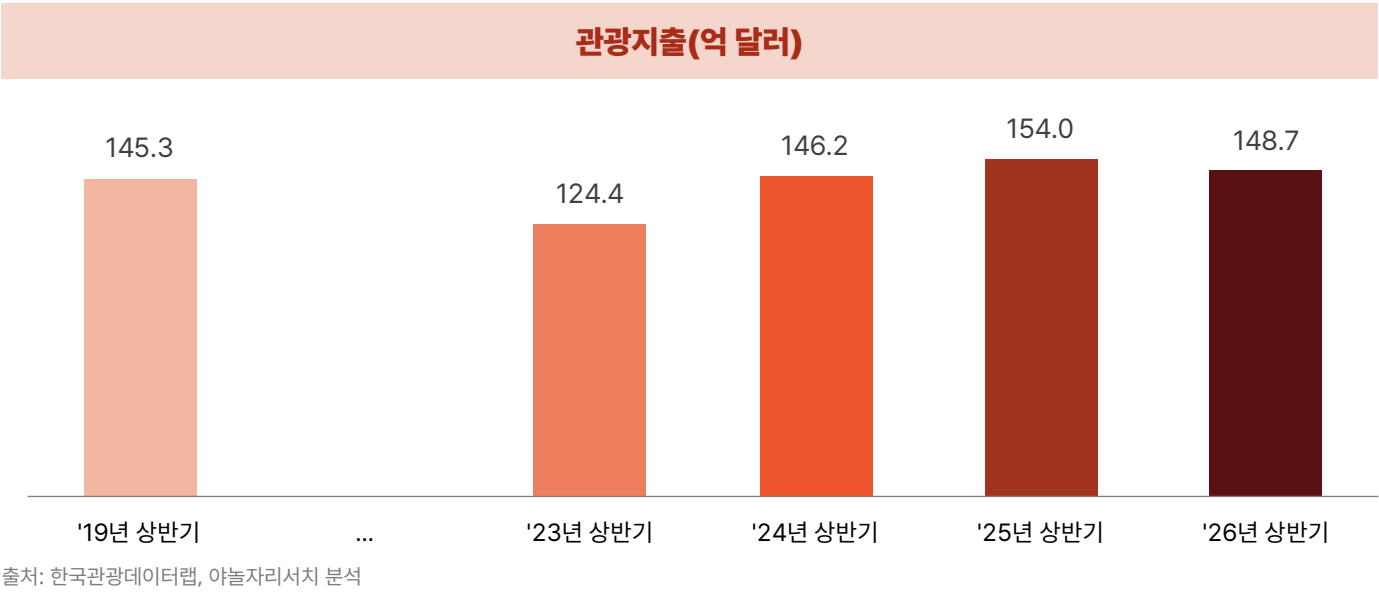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월별 해외 여행객 수 변화(만 명)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해외여행 상위 목적지 국가의 관광객 수(만 명)

국가	2019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9년 대비 '26년 증감율(%)	'25년 대비 '26년 증감율(%)
일본	386.3	312.8	444.2	478.4	567.5	46.9	18.6
베트남	207.9	160.2	228.2	220.8	216.1	4.0	-2.1
중국	-	26.5	100.5	147.7	171.4	-	16.0
미국	106.7	72.2	83.7	74.3	63.2	-40.8	-14.9
태국	90.7	76.3	93.5	77.2	58.7	-35.3	-24.0
필리핀	94.6	67.7	79.1	64.3	56.3	-40.5	-12.5
대만	55.7	31.3	51.0	53.7	53.0	-4.8	-1.3
홍콩	75.5	11.7	42.1	52.6	46.3	-38.7	-12.1
마카오	45.0	4.6	23.2	28.2	28.4	-36.9	0.7
싱가포르	31.1	27.2	30.7	29.8	26.6	-14.4	-10.8
인도네시아	17.6	14.5	19.1	22.8	21.5	22.3	-5.6
말레이시아	32.4	18.9	23.3	23.1	19.4	-40.0	-15.6

출처: 각국 통계청, 법무부, 야놀자리서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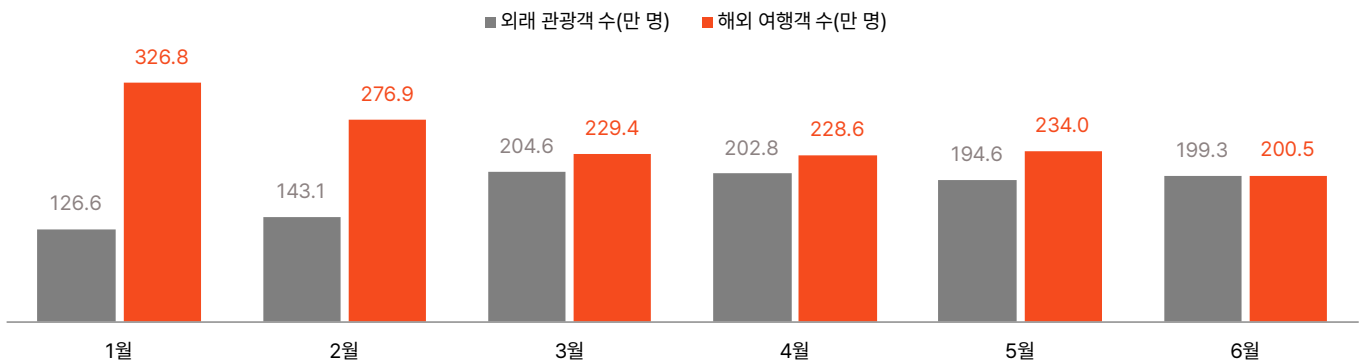
관광 수치: 4개월 연속 흑자, 연간 흑자 전환 가능성은?

- 2026년 상반기 한국 관광시장은 인바운드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아웃바운드는 5~6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1월에는 해외여행객이 방한객의 2.6배였지만, 3월부터 격차가 빠르게 줄어 6월에는 두 수치가 거의 같아졌다.
- 이 변화는 일반여행수지 기준 관광수지 개선으로 이어졌다. 2026년 관광수지는 1월 -14.0억 달러, 2월 -11.0억 달러의 적자로 출발했지만, 3월 +2.6억 달러로 11년 4개월 만에 월간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4월 +1.6억 달러, 5월 +2.2억 달러, 6월 +6.0억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관광수지는 -12.6억 달러로 여전히 적자였지만, 2019년 동기(-41.8억 달러)와 2025년 동기(-54.3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 관광수지 개선의 직접적인 회계적 배경은 관광수입이 전년 대비 36.4% 증가한 반면 관광지출은 3.5% 감소한 데 있다. 관광수입은 외래관광객 수 증가(+21.3%)와 1인당 관광수입 증가(+12.4%)가 함께 견인했다. 반면 해외여행객 수는 2.7% 늘었지만 1인당 관광지출이 6.0% 감소하면서 총 관광지출은 줄었다. 즉 상반기 수치 개선은 인바운드 규모와 단가의 동반 상승, 아웃바운드 지출 단가의 하락이 결합된 결과이다.
- 환율은 이러한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고, 2026년에는 1월 87.02에서 6월 83.06으로 낮아졌다. 원화의 실질가치 하락은 외국인에게 한국 여행의 가격 매력을 높이고 내국인에게 해외여행 비용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환율은 관광수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월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외환 수급 개선, 시장 안정 조치 등이 겹치며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러한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통화정책과 달러화 방향, 반도체 경기, 중동 정세, 국내외 자본 흐름 등이 환율과 여행 수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치로만 보면 연간 흑자 전환은 가능한 범위에 있다. 하반기에 누적 12.6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내면 연간 흑자로 전환되는데, 이는 월평균 약 2.1억 달러에 해당하며 3~6월 월평균 흑자(3.1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방한객 1인당 지출액이 줄거나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 흑자 폭은 축소될 수 있고, 반대로 방한 수요가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흑자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종합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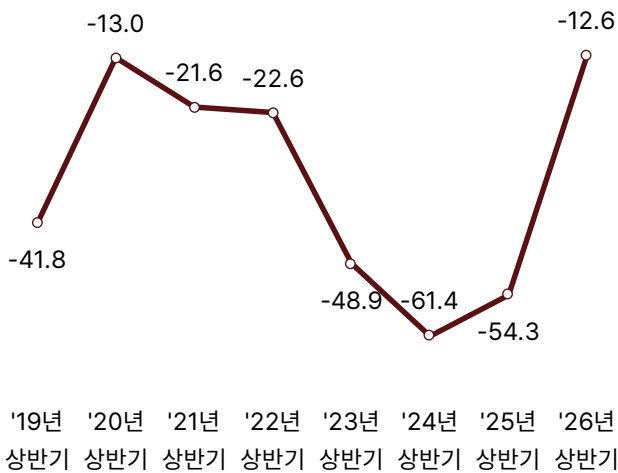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의 핵심 변화는 인바운드의 양적 확대와 1인당 관광수입 증가, 지방 관문 이용 확대, 아웃바운드의 일본 집중, 그리고 관광수지 적자 폭의 급격한 축소로 요약된다. 향후 정책과 업계 전략은 외래객 수 확대에 더해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수요의 실질적 소비 효과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면세·쇼핑 소비 회복과 지방 체류 확대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아웃바운드 시장은 환율과 항공 공급 변화에 따른 목적지 편중과 수요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026년 상반기 한국 인·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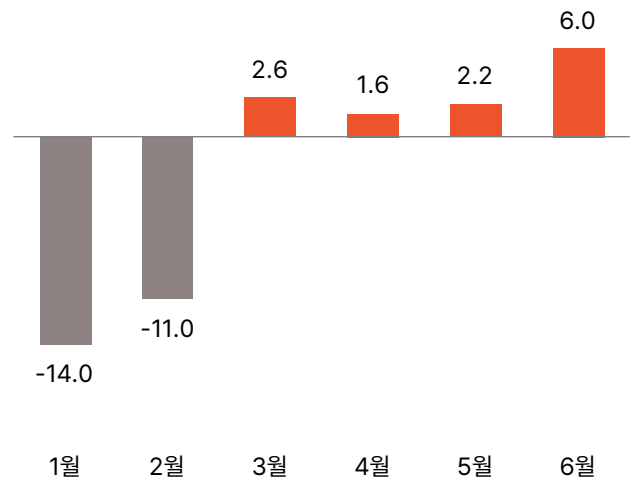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상반기 관광수지 추이(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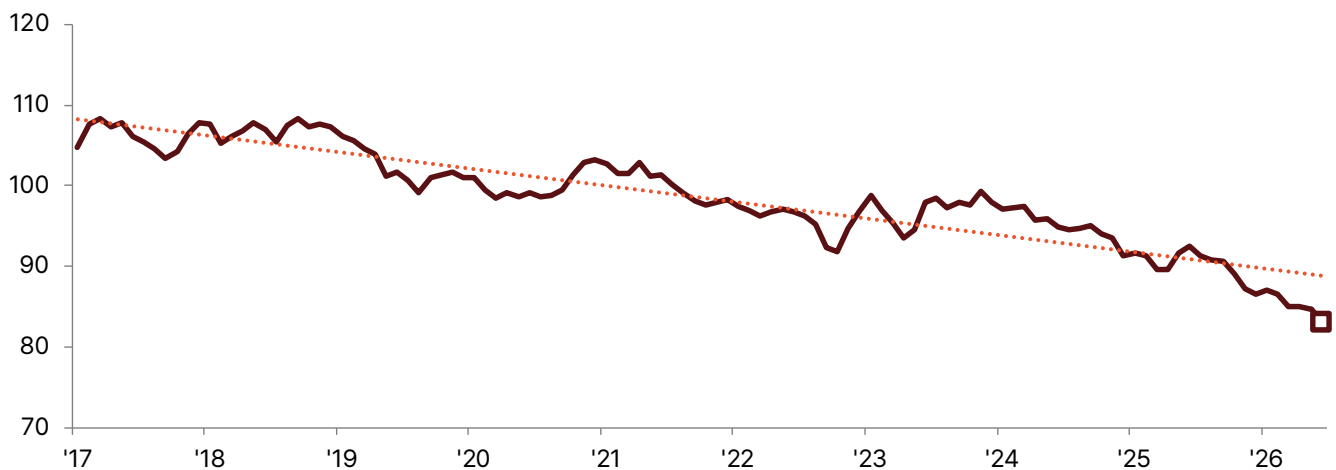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2026년 월별 관광수지(억 달러)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야놀자리서치 분석

한국 실질실효환율(2020=100)



출처: 한국은행, 야놀자리서치 분석



Disclaimer : 본 보고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야놀자의 입장이나 사업전략을 반영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야놀자리서치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며, 동의 없이 본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야놀자리서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